



천주교벤투라성당

VENTURA KOREAN CATHOLIC CHURCH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D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53-0603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금	첫주 목 (성시간)
오전 10시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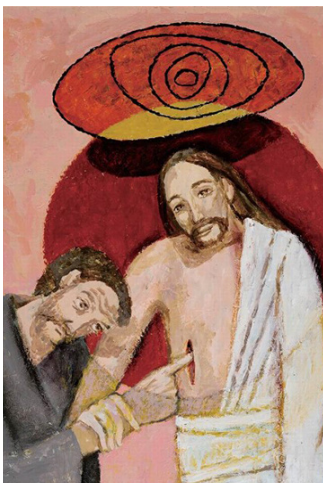
부활 제2주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

2 0 2 6

0 4

1 2

주보



입당송 1베드 2,2 참조

갓난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2,42-47

화답송 시편 118(117),2-4.13-15 ㄱ나.22-24(◎ 1)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 소리. ◎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베드로 1서 1,3-9

복음 환호송 요한 20,29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 알렐루야.

복음 <여드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 20,19-31

영성체송 요한 20,27 참조

네 손을 넣어 못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자녀 학비 대느라 암 치료 시기 놓친 솔로몬씨

18년 장기근속 필리핀 이주노동자, 갑상선암 전이 ...병원비 4,500만원
투병 중에도 아이들 걱정이 먼저

“아픈 상황에서도 여전히 본인 몸 걱정보다는 자녀들 걱정이 먼저인 분입니다. 아이들 학비 댄다고 병원을 제대로 가지 못하다가 이 지경까지 암을 키웠는데, 빨리 나아서 돈을 벌어 딸이 전문의 과정까지 가는 데 학비를 내고 싶다고 합니다.”(창원이주민센터 윤종두 신부)

산 이거스틴 솔로몬(50)씨는 21년째 한국 생활 중이다. 아내와 두 자녀는 필리핀에 남겨두고 생활비와 두 자녀의 학비를 대고자 성실히 일해왔다.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직장에서만 18년 동안 장기근속 했고, 집과 회사, 성당만 오갈 뿐이었다.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다. 그의 소원은 단 하나. 두 자녀가 경제적 사정으로 꿈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그는 매주 성당에 조용히 와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뿐이다. 이런 그의 노력에 힘입어 장녀 마리엘은 의대에 진학해 수련 중이다. 장남 마빈도 방사선사가 됐다.

두 자녀를 열심히 키워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다. 취업비자가 있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터에 나가기만 반복할 뿐이었다. 목 뒤쪽이 부어올랐지만 단순한 피로에 따른 일시적, 증상으로 여겼다. 그의 몸은 버티지 못했고 결국 지난해 6월 갑상선암을 진단받았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종양은 이미 10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선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지난해 말 수술을 진행했다. 암의 상태는 림프절은 물론 다른 장기까지 전이돼 종양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치료를 중단하면 생명이 유지되지 못할 만큼 중증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약 없는 항암치료를 앞두고 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료비 역시 그를 짓누르고 있다. 청구된 병원비만 4500만 원에 달한다. 그가 가진 700만 원은 초기 치료비로 이미 다 쓴 상태다. 갑상선암으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졌지만, 항암치료를 앞둔 그는 당장 생활비와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일터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창원이주민 센터와 병원 측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공장 측도 그의 성실한 태도를 인정해 가벼운 일이라도 맡기고 있다. 그럼에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하기란 역부족이다.

이 상황 속에도 솔로몬씨는 자녀 걱정이 우선이다. 윤 신부는 “항상 아이들 얘기밖에 하지 않는다”며 “그는 ‘빨리 돈을 벌어 두 자녀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미주가톨릭평화신문 3월 29일자 발취)



'사랑이 피어나는 곳' 후원안내

후원을 해주실 교우분들은 김미숙 마리안나 복지분과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황님 4월 지향 기도

<위기를 겪는 사제들>

성소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제들이 필요한 동반을 얻고, 공동체가 이해와 기도로 그들에게 힘을 보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본당 공동체를 봉헌하는 기도지향

- 1) 하느님 말씀을 통한 영적성장을 위하여
- 2) 내면의 상처 치유와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극복을 위하여
- 3) 겸손으로 서로 섬김을 위하여
- 4) 성사생활 참여를 어려워하는 신자들을 위하여
- 5) 예비신자 입교와 새 신자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4월	목주기도	성경읽기	평일미사	희생, 봉사, 자선
1주	642	15	14	26
2주				
3주				
4주				
합계	642	15	14	26

1. 산타 마리아 공소 미사

- 일시 : 4월 12일(주일) 15:30(봉성체)/ 16:30(미사) • 장소 : 롬폭 / 산타마리아

2. 미사 안내

- 평일미사 변동사항
 - 4월 17일(금), 24일(금) 09:30 미사는 없습니다. 금요일 Cell 기도모임은 그대로 진행합니다.
- 주일미사 주례 신부님
 - 4월 19일(주일) 미사는 예수회 로올라대학에 계신 채희상 도미니코 신부님께서, 4월 26일(주일) 미사는 LA 대교구 소속 정 브라이언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십니다.
 - 본당 신부의 4월 15일(수) - 29일(수)까지 바오로 사도 선교지(터키, 그리스)와 메주고리 성모님 발현지 순례가 있습니다. 멀리서 주일미사 집전을 위해 벤투라 본당을 방문해 주시는 신부님들을 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당 하계 캠핑 신청

- 일시 : 7월 11일(토)12:00 -13일(월) 12:00
 - 장소 : 벤투라 or 추마시 레이크
 - 신청 : 사목회 서기(앤디 대건 안드레아)
- 5가정 이상 신청시 캠핑을 진행합니다. 신청가구가 적을시에는 7월 12일(주일) 당일에만 야외미사를 진행합니다.

4. 성경공부 그룹나눔

- 일시: 사순시기 부터 월 1회, 조별 시간에 맞춤
- 장소: 성당 or 조의 가정
- 조편성: 서로 시간이 맞는 인원 중심으로 2-5명

5.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셀”(Cell) 기도 모임 안내

- 매주 금 09:30 미사, “셀(Cell)”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 매주 주일 12:00 “셀(Cell)” 기도 모임도 시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2026년 과달루페 성모님께 기도 봉헌

매주 게시판에 구역별로 기도를 집계하여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 성경읽기의 경우 20분 단위로(읽기 or 구절 묵상) 1회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7. 일회용품 절감 위한 개인 텀블러 사용

한해 종이컵 사용 비용만으로 200불이 지출이 되고 있어, 일회용품 절감이 필요하오니 개인 텀블러를 성당에 비치하거나 소지하여 이용 바랍니다.

8. 과달루페 성지순례

- 일시 : 11월 16일(월)-19일(목)
- 장소 : 과달루페 성모성지 (멕시코 시티)
- 신청 : 인원 파악을 위해 앤디 대건 안드레아 사목회 서기님께 신청바랍니다.

전례안내

전례봉사자(독서) 안내

4월 12일 부활 제2주일	4월 19일 부활 제3주일
제1독서 : 정석건 대건안드레아 제2독서 : 앤디 대건안드레아	제1독서 : 설옥진 카타리나 제2독서 : 이경숙 도미니카

재정소식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들의 정성				주일미사/ 평일미사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4월 5일	\$500	부활성야 \$370		\$1,570	35/42		35/42
		부활대축일 \$700					
4월 12일							
4월 19일							
4월 26일							
합계	\$500	\$1,070		\$1,570			

교무금 현황 김광일(4), 민원기(4), 이상숙(1-5)